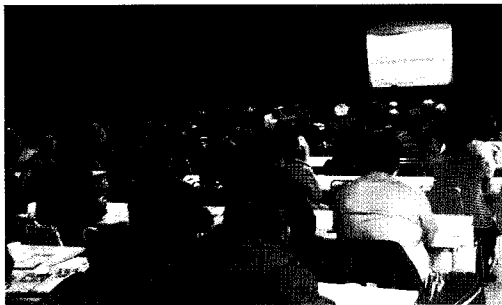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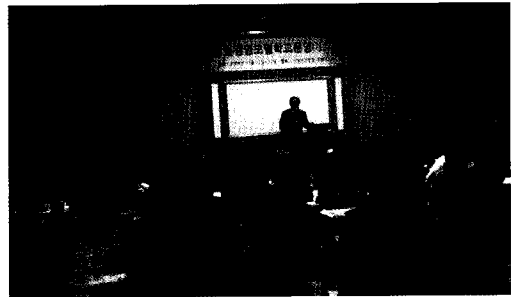
2008년도 제2기 산림경영모델학교운영

우리협회에서는 지난 12월 11~13일 까지 3일간 전남 화순군 이서면 안심리 산168 안양 자연휴양림에서 2008년도 제2기 산림경영모델 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12:00~13:00시에 등록과 중식을 마치고 안양산 자연휴양림 진재량회장의 조림현장교육을 받고 14:00에 대강당에서 개강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교육개강식에는 하문섭회장의 개회사와 화순군수의 환영사(문인수 부군수대독)있었으며

환영차 화순군산림조합장 등 내빈이 와주신 중에 회원 128명과 가족(부인)8명 도합 136명이 참여 하시는 대성황리에 개최하여 국립산림과학원 김석권 박사의 '삼나무, 편백 인공조림지의 시업적 대응과 경영전략'에 대한 강의를 청취하고, 산림 공무원출신 정치인 박재순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산림정책'에 대한 강의를 진지하게 청취하였습니다. 특히 현재국회에 산림계출신인사가 단 1명도없는 현실을 개탄하고 분발 할 것을 자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19:00에 우리협회사무소를 대전으로 이전함에 따른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원 92명 참석성원으로 정관 제4조 사무소주소지를 서울특별시에서 대전광역시로 변경하는데 만장일치로 의결 되었습니다.

석식은 화순읍내식당에서 오랜만에 회원들이 정담과 친교를 하며 정담게 마치고 저녁에는 편백나무의 향기 그윽한 안양산 숲속에서 산림 경영의 체험답과 애로사항, 당국에의 건의



사항 및 집행부에 대한 요망사항 등 열띤 담론이 있었습니다.

2일째인 12일에는 백아산 관광복장을 견학하고 현장견학의 하이라이트인 모후산(母后山)으로 향해 가는 도중에 우리협회회원일동명의로 건립된 우리협회회원이며 모범독립가이신 고 윤재 정공 상환회장공적비(允濟 鄭公 尚煥會長功績碑 비문 : 13면 참조)에 하차하여 선배독립가의 명복을 빌고, 공적을 기리는 추념묵도를 하였습니다.

공과 더불어 조림으로 평생을 초지일관하시고 계신 김한태 명예회장, 김용지 고문 등은 남다른 감회에 공적비를 어루만지곤 하였습니다.



모후산 그 엄청난 면적의 삼나무, 편백나무 인공 조림지를 산중턱까지 20대의 꺾로퍼로 운송 접근하여 심도있게 견학관찰하고 현장실무 관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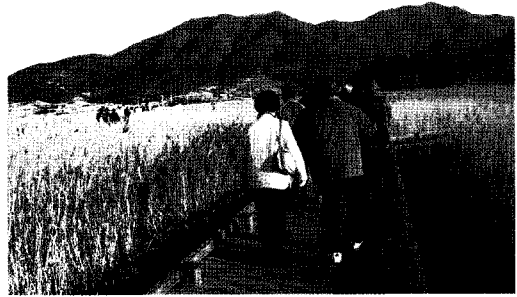
조종열씨의 해설을 청취하고 삼나무, 편백나무의 울창한 숲 사이로 잘 다듬어진 관찰로를 따라 내려오면서 회원 모두는 우리협회 하문섭회장의 젊음을 바친 필생의 예술작품을 감격어린 마음으로 목격 감상 하였습니다. 오후에 우리의 전통과 관습이 잘 보존되어있는 낙안읍성을 견학하고, 근래에 잘 정돈 된 순천만의 자연생태를 관찰하였습니다.

3일째 송원리조트 난초홀에서 하문섭회장의 '다수종 복합경영의 성공사례', 공희성 공인회계사의 '임야에 관한 세제', 이재호 부회장의 '산양삼 재배전망과 수출상품개발' 등에 대한 진지한 강의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평가가 이루어지어

- 우리협회가 자생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회원이 1,000명은 되어야 하니 회원 배가운동으로 각지회장, 부회장 등 임원은 10명 이상 추천하고 회원각자는 2명 이상 책임 추천키로 하자.

- 모델학교운영은 자체교육행사이니 당국(산림청)의 참석이 꼭요망되는 것은 아니나 정기



총회 하계연찬회에는 청장(최소한 차장)이 필히 참석토록 하자

- 산림청등록단체 108개 중 우리가 200만 산주의 대표다.

- 밤나무는 장기수종으로 편입하여 수종갱신에 따른 용자금상환에 불리함이 없도록 조치 필요(5년거치 10년상환은 너무단기이고 수확인건비 문제가 심각)

- 영림계획수립에 필요한 전문가를 협회에 채용하고 산림청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 일반농사는 8년자영하면 면세이고, 소득 보장직불금제도가 있는데 산림농사는 언제 쪼이나 되는지 시급한 해결사항이다.

- 회장선거규정이 정관을 위배한 조문이 많다 정관에 입각한 선거규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본행사의 종합적인 평가담론을 마치고 다음 해에 더욱 내실있는 교육행사를 갖도록 하고 아쉬운 작별을 하였습니다. **산림**

允濟鄭公尙煥會長功績碑

自古以來로十年大計는治山에있고百年大計는人材育成에있다고하였기에옛聖君은治國의要諦를治山治水에두지아니하였던가그러기에國家가보다富強하고繁榮隆昌하려면山林綠化에未來가있음을意味하고山林이鬱蒼하고아름다움은그나라의國力과經濟力의豊饒함을表示하는것이 그때마다우리라그리나不幸하게도우리나라는祖上으로부터물려받은아름다운錦繡江山을日帝의極甚한山林收奪과韓國戰爭麗順事件의戰火그리고人災로인한山崩과한때社會的混亂을틈타生計維持手段으로無差別的盜伐이山林을慘酷하게荒廢化해버렸을뿐아니라現代人の認識이人間中心的이고自然支配的인價値觀이남은産業主義와物質文明이開發이라는美名下에山林을마구잡이로파헤쳐지는것을몹새안타깝게여기는允濟公께서는愛國之道는多樣할것이나造林治山도나라를사랑하는길이라생각하고國家의山林綠化十個年計劃과公의透徹한愛林精神의相互作用으로寶城郡兼白面水南里山一의一番地外四十筆地三百餘町步에風土樹種으로適合한소나무편백잣나무고로쇠나무등三百萬株를심고가꾸어서四十年이 지난오늘에이르니그야말로엄청

나게鬱蒼하고아름다운숲이造成되어나무마다나라넌多様な表情과姿態는우리들모근하고便安한숲의故郷으로느끼게하여주었으니允濟公의그큰業績이어찌가르하지않으랴山林을잘가꾸어우리人間과自然이調和되게하고相助相扶하여숲과더불어살게하였을뿐아니라나무들이뻗어내는諸各各다른色調와잎새의饗宴·落葉의情景은自然이그리雄壯한한폭의實景韓國山樹畫가아니던가이에보는이마다稱頌이藉藉하니KBS·MBC 그리고各日刊紙마다앞다뒤公을人間常綠樹라模範篤林家라造林王이라極讚하며放映되고報道되었다나라에서도公의殊功을높이致賀하고銅塔産業勳章과統一主體國民會議勳章允濟章을授與하였다人間이란뜻을세우기는쉬우나允濟公처럼實行하기란편이아려운것이다公께서는한번뜻을定하면實踐躬行하는偉大한果斷性이일취년강진功績으로우리國民에게길이保存할큰教訓을남기었고本을보여주었기에公의愛林思想과山林綠化의樹勳을높이評價하고그功勳을永遠不忘코자篤林家一同이뜻을모아이碑를세우노라

西紀二〇〇八年 十二月 日

南江 鄭相鉉 撰
韓國山林經營人協會 會員一同 豎



11월은 숲가꾸기 기간 중부지방산림청, 숲가꾸기 행사 실시

산림청에서는 매년 11월 한 달을 '숲가꾸기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동안 숲가꾸기 체험 행사 등을 실시하여 숲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심영만)에서는 숲가꾸기 기간을 맞이하여 11. 11(화), 2008년 도시숲 조성지인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서 산림조합 충북도지회, 숲해설가, 기능인 영림단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을철 숲가꾸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가을철 숲가꾸기는 봄철에 심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피고, 지금까지 조성된 산림을 보다 경제·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숲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행사에서는 가지치기, 덩굴제거, 작업 후 발생된 고사목 제거와 산물 정리 등을 실시하였다.

도시숲은 국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녹색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숲속의 도시, 도시속의 숲」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성한 곳으로 충청권 내에는 '08년 현재까지 10개소를 조성하였다. 또한 도시숲은 도시와 산림 사이에 위치하여 도시 녹지 네트워크 구축상의 중간 거점 기능을

수행하며, 도심내 기온 저감 효과에도 기여한다.

이번 숲가꾸기를 실시하는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의 도시숲은 산책로 2.3km를 조성하였고, 도시숲내 이팝나무, 층층나무 등의 관목류와 붓꽃, 창포 등의 야생화를 식재하였으며, 종합 안내도 및 산림환경해설판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이 휴식과 동시에 산림생태학습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또한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림 및 임업분야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숲가꾸기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숲가꾸기 산물은 '사랑의 땀감'으로 농산촌지역의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생계곤란자 등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줄 계획이다. **산림**

산림경영과 서무계 박태현 (041-850-4051)



사라져 가는 산림문화자원, 전통 마을숲으로 이어간다.

산림청 2009년도부터 전통 마을숲 조성사업 착수

산림청(청장 하영제)은 2009년도부터 강원 춘천시 올미숲, 전남 영암군 동구림리 마을숲, 경북 영주시 주송골 마을숲을 대상으로 전통 마을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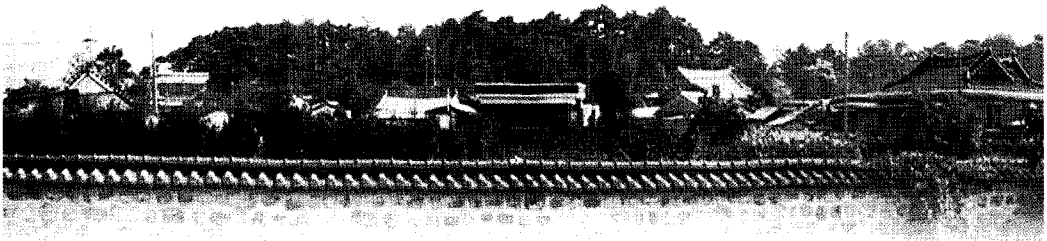
이를 위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학계 등 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대상 후보지에 대한 현장 평가를 실시하여 역사성, 생태성, 주민참여 의지, 접근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3개소를 최종 선정하였다.

마을숲은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 전국적으로는 약 484개소의 전통 마을숲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 보고 되고 있으나, 토양 답압, 시설물로 인한 피해 및 수목의 노쇠, 농·산촌 주민의 고령화 등으로 점차 소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통 마을숲 조성사업은 훼손 또는 소멸되고 있는 전통 마을숲을 복원·보전하여 숲과 함께 전해오는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고, 아름다운 산림경관을 창출하여 산림문화자원의 가치와 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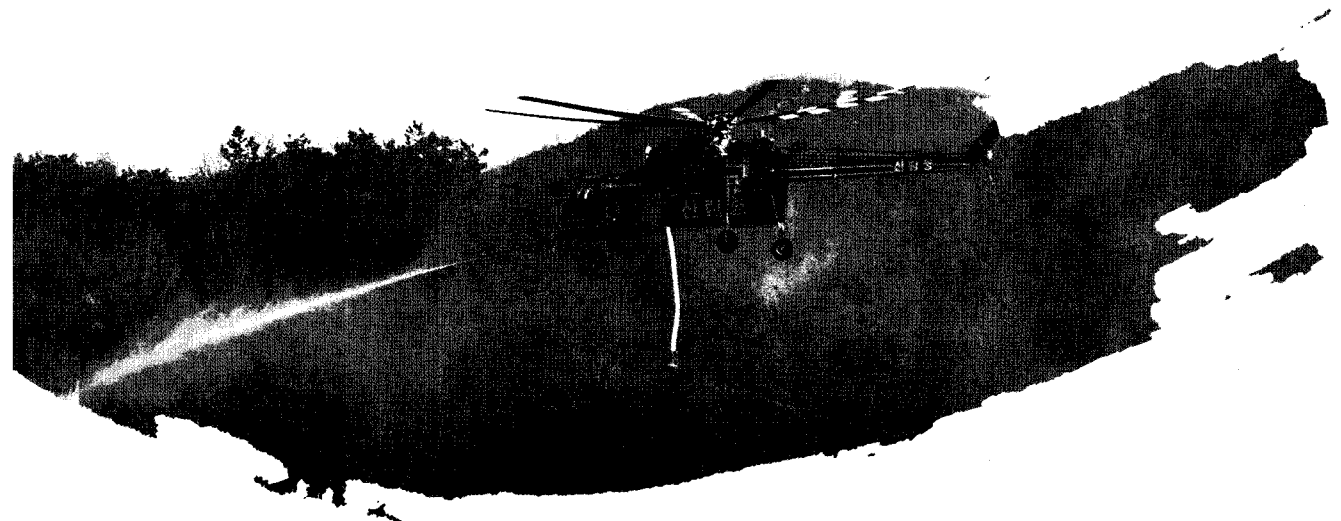
최병암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전통 마을숲은 생태적으로도 귀중한 자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속에서의 숲과 문화 즉, 산림문화가 녹아있는 매우 중요한 유·무형의 산림자원'이라며, '앞으로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산림문화의 계승 및 전통 마을숲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山林**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송준호 사무관 (042-481-4238)



산림청, 14일 경북 상주에서 「민·관·군 산불진화 합동 훈련」

담배꽂초 실화에 의한 산불발생 가상 시나리오로 민·관·군 합동
산불진화 및 청룡사 산불확산 방지 훈련



건조한 가을날씨와 단풍객 등의 입산활동 증가로 예년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가을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청장 하영제)과 상주시(시장 이정백)가 11월 14일 경북 상주시 소재 비봉산 자락에서 산림청 산불진화헬기 10대, 군헬기 1대 등 총 13대의 헬기와 민·관·군 1,000여명이 투입 되는 대규모 「민·관·군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통해 체계적인 산불진화시스템을 점검한다.

※ 산불진화 합동훈련 : '08. 11. 14(금), 14:00~15:40, 경북 상주시 비봉산

이번 훈련은 비봉산 인근의 드라마 세트장에서 관광객의 담배꽂초 실화로 산불이 발생, 확산되면서 인근의 청룡사로까지 산불이 번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산림청 공중지휘기의 통제 하에 산림, 소방, 군, 민간의 헬기를 이용한 공중진화와 산불전문진화대 등 400여명의 지상진화대가 투입되어 지상과 공중의 합동진화작전으로 산불을 진화하게 된다.



산불위험 수위에 따라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산불진화 헬기, 무인감시카메라, 산불예방·감시 장비의 운영체계를 효율화하여 유사시 초동진화 능력을 강화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05년 강원도 양양 산불로 소실된 낙산사와 올해 2월 화재로 소실된 송례문을 교훈삼아 문화재가 산불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비봉산 내 청룡사 인근의 산불을 가상해 공중과 지상에서 사찰(청룡사)을 보호하기 위한 진화작전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지상진화시 진화용 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과 산불확산 단계별 진화조치 등도 시현해 보임으로써 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위기관리 능력과 산불현장 통합지휘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한편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이후 11월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55건의 산불이 발생해 19.8ha의 산림이 불에 타는 등 예년보다 3배 이상 많은 가을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집중적인 산불발생시기도 1개월 가량 앞당겨지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전국에 산불감시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등 2만8천여 명의 산불감시 인력을 조기에 배치하여 산불감시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산불발생지에 대해서는 경찰,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등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입산통제, 출입차량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산불위험 예보제 및 산불확산 예측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산불위험 수위에 따라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산불진화 헬기, 무인감시카메라, 산불예방·감시 장비의 운영체계를 효율화하여 유사시 초동진화 능력을 강화하는 등 그 어느 해 보다도 산불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

산림청 산불방지과 최상록 주무관 (019-257-6022)

산림청 대변인실 최관욱 사무관 (011-478-3769)



열대식물 현지 복원사업을 통한 식물자원 외교 본격화!

국립수목원, 라오스 지역 멸종위기 식물 현지 복원사업 추진

국립수목원은 라오스 지역 멸종위기 희귀 난초과 식물 4종 13,000본의 현지 복원 행사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북쪽의 생물다양성 보존지역인 남특담 지역에서 11월 17일(월)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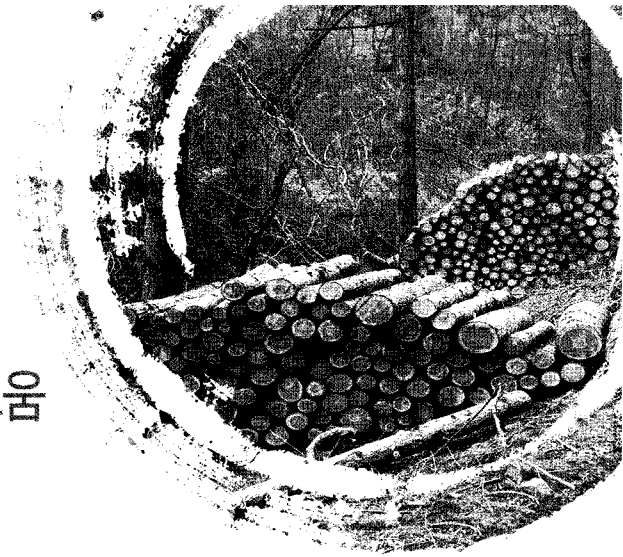
이번 행사에서 라오스국립대학과 산림청 국립수목원, 고려대학교, 바보난농원 관계자가 참여하여 라오스 지역 멸종위기 희귀 난초과 식물 4종 13,000본을 현지지역 최적 환경조건에 이식, 복원하였다. 난초과 식물의 전 종들은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주요 식물군으로 라오스에는 900여 종의 난초과 식물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 중 200여 종이 자생지에서 남획되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복원된 린코스타일리스류(*Rhynchostylis gigantea*, *Rhynchostylis coelestis*), 석곡류(*Dendrobium anosmum*), 나도풍란류(*Aerides multiflora*) 등 4종의 라오스 희귀 난초과 식물들은 꽃이 아름답고 향기가 좋아 라오스 현지에서 남획되어 자생지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종들이다. 국립수목원(박종서 원장)과 고려대학교(김기중 교수)는 라오스국립대학과 생물다양성 공동연구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라오스 희귀난초과 식물 조사 및 종자 수집, 조직 배양을 통한 대량 증식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증식 식물에 대한 동일성 검정을 실시하여 현지에 복원하는 국제적 수준의 희귀식물 복원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국립수목원 박광우 산림자원보존과장은 "열대지역인 인도차이나 라오스의 멸종위기 식물종 복원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수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라오스의 생물다양성 관련 장기적인 공동 연구 프로젝트로 양 국가의 유용식물자원의 이용과 개발을 위한 자원외교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림**

국립수목원 연구기획팀 강우창 (031-540-2034)





사랑의 땀감, 경제난속에 큰 도움

북부지방산림청 (청장 구길본)이 숲가꾸기를 통해 나무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산림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한편, 숲가꾸기로 발생한 부산물을 취약계층에게 난방용 땀감으로 제공함으로써 유류비 절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림탄소흡수원 확보 등 다각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사랑의 땀감 나누기는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한 부산물의 일부를 지역 내 취약계층 및 공공시설 (독거노인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마을회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에서 가꾸고 생산한 자원을 지역 주민에게 공급하는 자원 순환형 사회의 구현에 일조하고 있으며,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 사랑의 땀감나누기는 국내외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 지역 경제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500m³(5톤 트럭 100대)의 땀감을 100여 세대에 무상으로 각각 5m³여씩 나누어 줄 계획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는 나무 1m³의 열량이 난방유 226ℓ에 상당하는 것(에너지기본법 '에너지 열량 환산기준'

적용)으로 평가되는 점을 고려할 때 1가구당 난방유 1,130ℓ (1,309천원)를 제공하는 효과다.

또한 북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숲가꾸기를 위해 국비 110억원의 예산으로 11천ha의 숲을 가꾸어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한편, 지역 주민 1,000여명에게 숲가꾸기 상시고용 일자리를 제공해 오고 있다. 한편 북부지방산림청은 「'08년 숲가꾸기 기간」(11. 1 ~ 30)을 맞아 19일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 국유림에서 공무원, 임업인, 대학생 등이 참여하는 숲가꾸기 일일 체험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이 행사를 통해 발생한 숲가꾸기 부산물 10톤은 사랑의 땀감으로 지역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 「숲가꾸기 일일체험 및 사랑의 땀감나누기」행사
- 일 시 : '08. 11. 19, 10:00~12:30
- 장 소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약도 별첨)
- 참 가 : 숲을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아울러 북부지방산림청장(구길본)은 "숲가꾸기기를 통해 녹색성장을 위한 건강한 숲이 조성되고, 각종 부산물의 공급으로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만큼, 앞으로 국민들이 숲을 가꾸고 보호하는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하였다. **산림**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한병환 (033-738-6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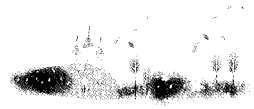
제2의 낙산사 산불피해 없어야...

산림청장, 18일 조계종 방문 '산불방지 숲가꾸기' 협조 요청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예년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가을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림내 사찰이나 목재문화재에 대한 산불피해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하영제 산림청장이 18일 오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지관 스님)을 예방, 산불로부터 사찰과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사찰 및 목조문화재 보호를 위한 산림청의「산불방지 숲가꾸기」에 불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 청장의 이번 조계종 방문은 최근 건조한 가을날씨와 단풍객 증가로 그 어느 해 보다도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산불로 인한 낙산사 소실('05. 4월)과 승례문 방화('08. 2월)와 같은 화마에 의한 문화재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하 청장은 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산림청이 올해를「사찰·문화재 보호 원년」으로 정하고 연초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사찰·목조문화재 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숲가꾸기 사업」에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4월초 전남 화순에 있는 운주사 사찰주변에 산불이 발생, 주변 산을 모두 태웠으나 불길 한 가운데 놓인 운주사 대웅전 등 사찰 건물 9동이 모두 온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찰 주변 산림에 대한 가지치기, 잡목 및 낙엽 제거 등과 같은 숲가꾸기 효과인 것으로 밝혀졌었다. 따라서 산림청은 올해 초부터 국보 및 보물급 문화재를 보유한 전국의 66개 목조문화재 주변 산림에 대해 숲가꾸기를 통해 건축물과 산림사이의 20~25m거리의 나무가 없는「이격공간」을 두어 산불발생시 목조 건축물에 산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문화재 산불피해 예방 조치를 추진해 왔다. 아울러 문화재 주변 산림에는 이격공간 외에도 축아베기, 가지치기, 잡목제거 등의 숲가꾸기를 한층 강화하여 산불발생시 산불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산불의 확산속도를 지연시키기 위한「완충지대」를 이격공간과 연접해 조성함으로써 산불로부터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산림청은「사찰·목조문화재 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숲가꾸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1일 경남 합천군 해인사에서 문화재청과「문화재 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협약」을 체결하였고, 산림청장이 전국 주요 사찰 10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주지스님 및 사찰 관계자에게 협조를 당부함으로써 불교계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는 등 사업추진에 적극성을 보여 왔다.

산림청은 올해 연말까지 전국 46개 주요 목조문화재 주변 산림에 대한 산불방지 숲가꾸기 사업을 완료할 예정인 가운데 오는 '09년에는 전국 주요 사찰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

산림청 산불방지과 정철호 주무관 (042-481-4251)



산림청, 「녹색 일자리」 10만개 만든다.

12. 1일 전경련 회관에서 「녹색 일자리 대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하영제)이 녹색일자리 확대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선다. 국가의 경제가 어려울 때 산림은 일자리 공급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미국의 대공황시 시민보전단(Civil Conservation Corps)은 산림에서 대규모 청년실업자를 흡수한 대표적 사례이며, 우리나라 경우에도 지난 IMF 시기에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도 연평균 1만 3천명의 실업자를 고용한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12월1일 산림청과 전경련이 공동으로 주최한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 녹색일자리 확대방안 대토론회」에서 산림청은 탄소순환경제 활성화, 산림웰빙산업 육성, 건강한 산림 만들기, 글로벌 시장 창출 등 4대 전략을 통해 2013년에 산림 분야에서 10만여개 일자리를 만드는 「녹색 일자리 확대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산림청의 이와 같은 「녹색 일자리 확대정책」은 최근 국제금융위기와 내수부진으로 고용악화가 예상되면서 잠재력이 큰 산림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면서, 화석에너지 위기 및 기후변화 예도 대비하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구체화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산림청의 녹색 일자리 확대전략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우선 「탄소순환경제 분야」에서는 불균형적인 산림영급구조, 생장이 정지된 리기다소나무

임지 등 기후변화 대응에 불리한 산림여건을 산림자원의 순환이용 확대를 통해 개선하고, 이를 통해 고용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목재 생산량을 현재의 3배 규모로 확대하고, 생산과정에 나오는 부산물, 소경재는 바이오 에너지 연료로 공급한다. 산촌을 중심으로 마을 스스로 숲을 가꾸면서 발생하는 산림바이오매스 자원을 에너지와 각종시설물에 사용하는 탄소 순환마을이 조성되고, 2020년까지 충남, 전북 지역의 리기다소나무림 갱신지 10만ha가 바이오 순환림 집중육성권역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육성권역을 중심으로 지역내 대학, 산업 및 연구시설 등으로 바이오매스 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차세대 목질계 바이오 첨단기지가 육성된다.

「산림웰빙산업 분야」에서는 웰빙과 로하스(LOHAS, 건강과 환경이 결합된 소비자들의 생활패턴)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바탕으로 산림 웰빙산업을 지역의 녹색성장동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촌마을별로 지역특산품을 발굴하여 브랜드화 하고 산지약용식품은 산촌의 신소득원으로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2013년까지 30개의 산지약용식품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특히, 산림문화체험 숲길, 치유의 숲, 도시 Green Way는 산림청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일자리를 창출 사업이다. 「건강한 산림 만들기

분야]에서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이른바 산림의 3대 재해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감시인력이 확충되고 조기대응 시스템이 구축된다. 특히, 재해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된 사방댐 시설은 향후 5년간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자국식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국제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국내 산림 생물자원의 보전, 증식, 자원화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어 산림청은 수목원, 생태숲 등 국가산림생물자원 보전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 글로벌 시장 분야」에서는 조만간 국제적인 산림탄소시장이 형성되어 국제협상 결과에 따라 개도국의 산림자원개발 시장의 잠재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산림자원개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실업증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계가 인정하는 산림녹화 성공신화와 그간의 사막화 방지, 열대림 복구 등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산림녹화를 주도하는 '동아시아 그린 허브전략'을 추진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역할을 하면서 산림탄소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산림청의 녹색 일자리 정책은 산림의 조성·관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어 온 그간의 산림정책이 국가경제 위기와 기후변화라고 하는 커다란 국가현안 해결을 위해 산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현 정부의 미래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실현모형을 제시



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녹색 일자리 확대 정책을 좀 더 체계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12월 1일(월) 14:00시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전국경제인 연합회와 공동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 녹색 일자리 확대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기업, 학계,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김상협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정책방향에 대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의 기능과 역할(중앙대 김정인 교수), 선진국의 산림내 녹색일자리 창출 사례(건국대 김재현 교수), 자치단체 녹색일자리 증대 방향과 지역경제 효과(이승형 전북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산림을 통한 녹색일자리 확대 정책방향(윤영균 산림청 산림자원국장) 등이 발표되었다. 또한, 전완준 회순군수, 이병욱 전경련 상무, 김용삼 월간조선 편집장,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김의정 국립산림과학원 임산공학부장은 지정 토론자로 나와 산림청의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산림**

산림청 산림정책과 이창재 과장 (042-481-4130)

일자리와 바이오에너지는 보물산에 있다!

'09년 일자리 2만8천여명으로 늘리고 겨울철 2천 가구에 땀감 공급

산림청(청장 하영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① 일자리 창출, ② 예산 및 외화 절감, ③ 에너지 절약, ④ 임업인 지원 방안, ⑤ 규제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산림 및 임업부분 경제난 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산림 공직자와 유관 기관의 참여를 위해 11.7일 오전(09:00)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산림청에서는 내년에 산림분야 일자리를 올해보다 1/3 확대된 2만8천명으로 늘리고, 목질계 바이오에너지의 활용을 6배 이상 대폭 확대하는 등의 구체적인 경제난 극복방안을 마련했다.

경제난 극복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겨울철 농산촌 지역 취약계층 2천 가구에 '사랑의 땀감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여 1가구당 최대 340만원에 해당하는 청정연료의 혼혼함을 제공할 계획이며,

- 10㎡는 난방유 2,260에 해당하는 대체효과 (경유 기준 340만원)

장기적으로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하여 펠릿

화목보일러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고유가에 대응하고 탄소배출도 저감하는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활용 확대를 추진한다.

- 펠릿보일러 ('08) 24대 → ('09) 2,000대 (83배 확대)
- 화목보일러 ('08) 750대 → ('09) 3,000대 (4배 확대)
- 바이오순환림 ('08) 50ha → ('09) 1,500ha (30배 확대)

또한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경제 어려움 극복에 기여하고, 가동실적이 낮은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휴식년제 확대 실시로 운영비를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 '07년(13개소, 77실) → '08년(17개소, 104실)

한편 하영제 산림청장은 이번「경제난 극복을 위한 산림부문 대책회의」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산림 공직자와 유관 기관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산림**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안병기 사무관 (042-481-4051)





우리나라 산림공무원 「국민생활 밀착형 산림정책」강화 의견

산림청 산림인력개발원, 「산림행정과 교육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우리나라 산림 공직자들은 앞으로 산림 행정이 「기후변화」와 「도시녹화」분야의 업무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산림인력개발원(원장 배영돈)이 지난 6.1~9.26사이 산림인력개발원에 입교한 1,274명의 산림청 및 지자체 산림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림행정과 교육발전을 위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산림청의 외연확대에 집중해야 할 분야는 어느 것이라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0%인 637명이 「기후변화」라고 답했고, 다음으로 「도시녹화」(20%, 255명), 「산림휴양」(15%, 191명), 「소득증대」(15%, 19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산림정책이 지난 40여 년에 걸쳐 성공적인 산림녹화를 이룩한 가운데 앞으로는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사회현안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생활 밀착형 산림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개정이 필요한 산림법률」에 대해 산지관리법(36.8%)을 가장 많이 꼽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5.3%),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14.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12.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가, 임업후계자 육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모델 개발(40.1%), 보조금 특별지원(28.4%), 각종 제도완화(28.1%)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중국, 몽골 등 사막화 확대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9%가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 과거 산림녹화시기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원조에 보답하고 우리의 우수한 산림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아울러 「산림인력개발원에서 확대, 개변해야 할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산림문화 및 휴양(43.1%), 산림소득 및 이용(29.8%), 산림정책 및 자원 조성(17.3%), 산림재해 방지(5.5%)의 응답 결과를 보였다. 이번 「산림행정과 교육발전을 위한 설문조사」결과에 대해 배영돈 산림인력개발원장은 "우리나라 산림 공직자들은 산림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활편의와 소득증대, 산림휴양과 같이 국민에 대한 산림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산림행정이 사회현안 문제 해결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山林**

산림인력개발원 최승열 주무관 (031-570-7331)